

## “시신 붙잡고 울수라도 있었으면”

### 괌 KAL기 사고 유족들 미국서 소송 타진

“시신이라도 봤다면 붙잡고 실컷 울기라도 했을텐데.”

지난해 8월6일 괌에서 KAL기 추락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김영란(44·브루클린 거주)씨의 눈물젖은 말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이 다되도록 아직도 유가족의 한은 풀리지 않았다.

괌으로 출장갔던 남편 김병갑(72)씨를 졸지에 잃어버린 박순업(67)씨는 KAL에서 유가족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2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거절하고 억울함을 풀겠다는 일념으로 미국에 왔다.

뉴욕에 두 딸이 살고 있다는 박씨는 3일 둘째 딸과 함께 맨해튼 김동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같은 사연을 하소연했다.

박씨는 사고가 난 뒤 KAL이나 괌 정부에서 보여준 무성의가 더욱 서러웠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 괌에 다시 가니 유족들과의 상의도 없이 분향소를 없앴다”는 박씨는 “DNA를 통한 유전자 감식이 더이상 안된다는 말로 불에 탄 54구의 시체를 한꺼번에 화장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독실한 불교신자라는 박씨는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아 고향인 경기도 가평에 모시고 싶었다”며 장례식도 초라하고 유골함마저 엉성하게 준비하는 등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듯한 괌 당국과 KAL의 처사가 못마땅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씨는 KAL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박씨는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일괄적인 보상금을 거절한 채 가뜩이나 IMF로 어려운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KAL과 괌당국이 보여준 무성의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씨와 함께 나온 둘째 딸 김씨는 “본국이 부강했으면 괌 당국이 이처럼 무성의하게 유가족들을 푸대접할 수 있을 까하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괌 사고는 진상이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잊혀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1998년 4월 6일 (월요일) 중앙일보 한인사회 섹션 2